

오피니언

다산포럼

송재소



비극적인 천안함 사태가 일어난 지 5개월이 지났다. 50여 명의 꽃다운 젊은이를 희생시킨 천안함 사건은, 민족과 미래를...

습격에 대비하여 망을 보고 경계하는 임무를 맡은 군함이다. 직접 전투에 참가하여 교전을 벌이는 전함(戰艦)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한자와 영어에 대하여

과 한자는 적어도 500년 이상 공존해 왔고 우리말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의 도움을 받아 형성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한자의 도움 없이는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이 수두룩하다.

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초계함, 정조시간 등은 설불리 우리말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 우리말로 옮긴다 하더라도 말이 길어진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는 여전히 한자어로 된 어휘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일기예보 시간에는 “오늘은 박무가 끼어있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박무’(薄霧)는 곧 얇은 안개라는 뜻이다.

우리가 박무, 종북단체, 이안류, 점염 등의 용어를 계속 사용하려면 薄霧, 從北團體, 離岸流, 蝶泳 등의 한자를 반드시 병기해야 한다.

요사이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 ‘미소금’

움의 ‘미소’이다. 처음에는 ‘미소(微笑)’라 생각했다. 즉 서민을 미소 짓게 하는 금융의 뜻으로 여겼다. 그런데 영어로 표기된 말을 보니 ‘smile bank’라 하지 않고 ‘smile microbank’로 되어 있다.

또 한 가지 괴심한 것은 미소금융의 표기에 한글과 영어만 있고 한자는 없다는 사실이다. 영어와 한자 중에서 어느 언어가 한글과 더 친연성(親緣性)이 있는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호남 따돌리면서 국민통합 하겠다고

내일로 이명박 정부가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전반기가 되돌아 보는 호남인의 심정은 편치 않다.

MB 정부 들어 광주·전남지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한겨울이다.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주요 향토기업들이 현 정부 아래서 줄줄이 도산하거나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지역민의 소외감은 인사에서 극에 달한다. 정부의 주요 고위직이나 권력기관의 인사에서 광주·전남출신은 철저하게 배제됐다.

기아차 노사氣 싸움에 등 터지는 협력업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50만대 재편사업’이 노사 간의 갈등으로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증산 계획만 믿고 인원 충원과 설비 증설에 투자한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사는 지난 2월 50만대 재편사업에 합의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둬 줄 경우 소용 단일 차종 20만대 등 광주공장의 연간 생산 규모가 42만대에서 50만대로 도약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청사진은 노사 간의 기(氣) 싸움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1공장의 인원 조정을 논의하는 노사 간의 부서협약이 파행을 겪고 있기 때

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동북아 상품거래소 유치 등 대통령 공약사업마저 흐지부지 되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도 명암이 있다. MB 정부도 세계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MB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호남의 성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는 국민통합의 힘을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고

주남식



20세기 후반 세계적 인구의 유동과 함께 많은 대도시들은 글로벌 도시로 바뀌어 갔다. 일본 주요도시의 지하철에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가 병기되어 있고, 남대문시장이나 명동의 노점상 상인들은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외국어 간판도 쉽게 볼 수 있다.

이제 광주의 도시 DNA도 바뀌어야 한다.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는 열린 도시, 외국인친화도시가 되어야 한

학생들이 광주에 몰려든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광주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미래사회를 움직여 나갈 지구촌 젊은이들이 광주에 모여 다양한 기량을 선보이며 서로 우정을 맺고 연대를 이루게 된다.

광주, 글로벌 마인드로 세계를 품자

다. 창조도시 이론의 창시자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서 생산력의 핵심은 ‘인간’이고 인간의 창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시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열린 도시 도약을 위한 발판은 마련되었다. 2008년말 기준 광주 외국인 거주자는 1만2천여명에 이르며, 올해 ‘중국만명 광주활동’ 행사를 시작으로 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 2012세계대학배드민턴선수권, 2014세계수소에너지대회 등 굵직한 국제 행사가 매년 개최된다.

산만한 인삼 관리체계 일원화 시급

우리나라의 인삼은 세계적 자랑거리다. 그만큼 수출도 많이 하고 품질관리와 상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똑같은 인삼 혹은 인삼 관련 제품이지만 뿌리삼 제조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돼있고, 식품으로써 인삼제품 제조나 판매는 시장과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는 또다시 시장과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약품으로 인삼제품 제조와 판매시에는 식약청장 허가를 받게 돼있으니 정말 복잡하다.

▲권정애·순천시 가곡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NGO 칼럼

김재희



요즘 청소년들을 만나면 새삼스레 놀라곤 한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학생·가해학생들을 만나면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라는 안타까움과 ‘누가 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생은 일 년 동안 친구들과부터 폭행 및 금품갈취를 당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피해의 악몽에서 깨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학생의 어머니는 그동안 모르고 지냈다는 사실에 화가 나면서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휩싸여 했다.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자세

최근 또래 친구를 때려 코뼈가 부러지게 한 중학생을 만났다. 그 학생에게 ‘폭력은 안 된다’고 말했다니 ‘내 흉을 보고 다녀서 때린 것뿐인데 왜 나에게만 벌을 주느냐’라며, ‘학교 선생님이 나 부모님도 저희가 잘못하면 때리는 데, 왜 우리는 나쁜 짓을 한 친구를 때릴 수 없느냐?’고 반문했다.

그렇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며 잘못된 행동을 하면 체벌을 하곤 한다. 하지만, 그 학생의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잘못 가르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부모로서 어른로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어떻게 청소년들을 지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2008년부터 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안타까운 사건들을 많이 접했다. 어떤 학

과 걱정과 근심만 가득하다. 이에 반해 가해학생 어머니는 ‘살마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했어요? 장난으로 그랬죠.’라고 쉽게 이야기한다. 청소년들은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어른들은 자녀들의 모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더라도 “친구가 부서워서 학교에 가지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어른들이, 부모들이 나서야 한다.

예능프로 자막 한글과피 심각...남발사례 줄여가야

요즘 TV를 보노라면 단순한 자막의 공해가 아니라 한글 왜곡이나 변질의 수준을 넘어 완전히 치유 불능상태로의 ‘파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연예프로 중 닥터없이 튀어나온 자막에 ‘급(急) 칭찬’이라고 하더니 잠시 후엔 ‘킹 오브(King of) 대단’이라는 황당한 조어가 등장했다.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쉐빙이라고고 하는데 거기서 따왔는지 ‘생 목소리’라는 말을 ‘생목’이라고 줄여 부르는 것을 그대로 자막 처리 했다.

우리말 중 부사로 쓰이는 ‘너무’를 긍정적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대표적인 문법 오류이다. 즉 ‘정말’이라고 써야 하는 대목에서 ‘너무’라는 말을 남발하는 것이다.

▲임광복·광주시 남구 구소동

無等鼓

사극 중 왕조가 바뀌거나 왕위를 계승하는 장면에서 가장 클로즈업되는 물건이 있다. 어보(御寶), 대보(大寶)라고도 불리는 국새(國璽).

우리나라는 중국과 역사적인 특수관계 때문에 국새도 중국에 큰 영향을 받았다. 우리나라 국새는 대외적인 외교문서에 쓰는 것과 국내에서 쓰는 것으로 나누어졌다.

1894년(고종 20) 갑오개혁 전까지 외교문서에 쓴 것은 중국 역대 왕조의 황제들에게서 받았고, 다른 것들은 국내에서 만들어 썼다.

이렇듯 외세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 왕조시대 국새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된 뒤 1949년 5월 새롭게 태어났다.

사방 약 6cm의 정방형에 전자체로 ‘대한민국지새’(大韓民國之璽)라고 새겨

졌던 이른바 1대 국새는 당시 내각사무처 관리로 1962년까지 쓰였다.

시기별로 1963년부터 1999년까지 쓰인 2대 국새, 정부수립 50주년을 기념한 3대 국새에 이은 4번째 국새는 국가제작단에 의해 만들어져 2008년 2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태평성세를 뜻하는 길조인 봉황(鳳凰)이 구름 위에 내려앉은 형상으로 만들어진 4대 국새를 놓고 시비가 일고 있다.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 200톤이 사라졌다. 남은 금으로 ‘금도장’을 만들어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들렀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일부인사들은 대왕조의 황제들에게서 받았고, 다른 것들은 국내에서 만들어 썼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康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독자선정·매달내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채취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제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027-9500)
디 지 인 2200-536 서울지사 2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